

국내 자생테러 발생가능성에 대한 연구 : 이슬람 자생테러를 중심으로*

박 철 현**

국 | 문 | 조 | 록

이 연구는 유럽과 미국사회에서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자생테러를 소개하고 국내에서의 발생가능성과 그 대책에 대해 논의한다. 9.11 테러이후 서구에서 문제되고 있는 자생테러는 기존의 테러와는 달리, 주로 폭발물을 이용하여 대규모의 피해를 가져오며 국제적인 테러리스트의 이동에 의해 나타나기보다는 서구사회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국가의 정부나 국민들을 공격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영국이나 스페인에서 발생한 출근길 지하철과 버스에서의 동시다발적인 폭탄테러는 수 천 명의 시민들을 희생시키는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서구사회에서의 자생테러가 기존의 테러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갖고 나타나기 때문에 대비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하지만, 나름대로 서구사회의 급진화는 정체성의 혼란과 이슬람으로의 개종과 이슬람교에 대한 형식적인 해석을 심화하는 일정한 패턴을 나타낸다고 지적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급진화과정에서 작용하는 배경요인, 촉발요인, 기회요인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한국의 자생테러의 발생가능성에 대해 분석한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볼 때, 한국사회에서 현재로서는 자생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은 비교적 낮지만, 향후 외국인노동자 등으로 무슬림의 가족단위 정착이 진행될 때 자생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향후 예상되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몇 가지 대책을 제시한다.

❖ 주제어 : 자생테러, 테러리즘, 이슬람테러, 서구의 급진화

I. 서 론

최근에 자생테러는 서구사회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9.11 테러 이후에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동의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과제번호2010AA044)

**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부교수

서구사회를 겨냥한 테러가 국제적인 테러리스트의 이동에 대한 감시가 강해지면서, 테러의 형태를 서구사회에서 태어나거나 서구사회에서 성장기의 대부분을 보낸 사람들이 같은 나라의 사람들을 목표로 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서구사회에서는 자신들의 골칫거리가 된 이 자생테러에 대해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다양한 움직임이 있고, 그 중 하나로서 2010년 9월에 튀빙겐대학에서는 “서구사회에서의 급진화: 자생테러의 예방”을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미국에서도 자생테러에 대한 대처를 위해 9.11 테러 이후 만들어진 <국토안보법(Homeland Security Law, 2002)>을 개정하여 2007년에는 <폭력적 급진화와 자생테러 예방법(Violent Radicalization and Homegrown Terrorism Prevention Act, 2007)>을 새로이 제정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자생테러(homegrown terrorism)란 “미국이나 미국의 어떤 소유물 내에서 태어나거나 성장하거나 기반을 갖고 활동하는 어떤 집단이나 개인이 정치적, 사회적 목적들을 위해 미국정부, 미국시민, 또는 그것의 어떤 부분을 위협하거나 강요하기 위해 무력이나 폭력을 사용하거나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한 국가 안에서 발생하는 테러를 지칭하기 위해 국내테러(domestic terrorism)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용어와 뚜렷이 구분되는 현상을 지칭하기 위하여 자생테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전통적인 국내테러가 주로 지역적 쟁점을 중심으로 방화, 암살, 총격이나 사소한 공격의 형태로 나타나는 반면, 최근의 자생테러는 보다 넓은 국가 간 그리고 사회정치적 불만과 관련하여 대량의 인명피해를 가져오는 폭탄테러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것은 주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만든 급진적인 테러단체의 주장에 동조한 내국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발생한다. 따라서 이 새로운 현상을 지칭하는 많은 용어들이 나타났는데, DIY 테러(Jenkins, 2010), ‘지도자 없는 지하드’(Sageman, 2008), 글로벌 지하드(global jihad), 국경없는 지하드(borderless jihad) 등의 많은 용어들은 이러한 최근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자생테러들을 지칭하는 용어들이다.

자생테러가 꼭 해당국가에서 태어나거나 자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지하드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1995년 오클라호마주에서 연방정부건물을 폭탄테러하여 168명이 사망하고 850명이 부상하는 대형 인명참사를

냈던 티모시 맥베이(Timothy McVeigh)는 반정부주의자로서 텍사스의 민병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80명의 인명피해를 낸 연방정부에 항의하는 표시로 테러를 저질렀다. 국내에서도 자생적인 급진적 사회주의자나, 급진적 환경운동가들에 의해 이러한 자생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자생테러는 서구사회에서와 같이 이슬람 근본주의에 기초한 무슬림의 자생테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전자의 자생테러 발생가능성은 이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국내에서 대규모의 인명피해를 가져왔던 사건 중에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이나 신림동 고시원 방화사건 등이 있으나 이들은 모두 성격장애나 개인적인 문제상황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사회나 국가에 대해 전달하는 뚜렷한 메시지가 있는, 테러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 테러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몇몇 선행연구들(박동균, 2009; 조호대, 2004 등)도 북한에 의한 테러나 다른 국제적인 테러의 국내 발생가능성에 대해 주로 논의하고 있어, 본격적인 자생테러에 대한 논의는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대규모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서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생테러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고, 한국에서의 발생가능성을 진단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II. 서구사회에서의 자생테러 실태와 관련요인들

냉전이 종식되고 난 후 이슬람세계에서는 유래 없는 이슬람 근본주의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였다. 종교적으로 채색된 근본주의 테러리즘(뉴테러리즘)에서는 자신들의 기준에서 정의한, 선과 악의 기준에서 적은 항상 악이 된다. 따라서 악과의 싸움에서 개별적인 희생은 감수되어야 하며, 선의의 피해자나 희생자는 거룩한 성전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구춘권, 2004). 이처럼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졌던 폭력에 대한 제한이나 통제는 이슬람의 새로운 근본주의 테러리즘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으며, 오히려 적에게 퍼붓는 극단적인 폭력은 이슬람을 지배해 온 서구세계에 대한 통렬한 공격이다. 이 점에서 미국에 대한 알카에다의 9.11 테러는 이슬람세계의 성스러

은 투쟁으로 여겨진다.

이슬람 근본주의가 세력을 얻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슬람세계의 빈곤과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사회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이슬람 왕조들은 석유판매를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지만, 이들은 국민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부를 투자하기 보다는 서구사회에서 이자놀이를 하는데 급급하였다. 그 결과 아랍지역의 국내 총생산은 극도로 정체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이 지역의 연 평균 경제성장률은 8.6%에 달했지만, 1980년대에는 0.7%, 1990년대에는 3.3%에 불과하였다. 또한 무슬림의 인구증가율은 매우 높으므로, 1975년에서 1998년 사이의 일인당 국민소득의 증가는 연 평균 0.5%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정체는 높은 출산율과 함께 실업자를 양산하였으며, 지구온난화와 함께 진행된 물부족으로 인해 농지가 줄어들게 되고 많은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주하여 실업자가 되었다. 도시로 이주한 젊은 무슬림들은 일자리는 물론 삶의 희망이 없는 계층이 되어,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리스트들이 충원되는 훌륭한 토양이 되었다(구춘권, 2004).

이슬람 근본주의가 특히 반서구적, 반미국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데는 다음의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역사적으로 이슬람세계의 위기는 서구의 식민주의에서 비롯되며, 이 식민지 시절을 통해서 이슬람은 오랜 기간 동안에 고통과 치욕을 경험하였다. 둘째, 서구의 이스라엘정책은 아랍의 한 가운데로 유대인의 정착촌을 건설하게 함으로써 아랍인들에게 종교적 모독감을 느끼게 하였다. 셋째, 이란혁명 이후 주도권을 상실한 미국이 몇 차례의 전쟁을 통해 아랍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아랍인의 반미감정이 강해졌다(구춘권, 2004). 넷째, 부시행정부로 대표되는 미국의 기독교 근본주의는 이슬람 근본주의와 도저히 융화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기 어려웠다. 서로를 악으로 보는 두 근본주의의 충돌은 결국 거듭된 전쟁과 테러를 낳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적은 인명피해를 선호하고 자신의 목적을 알리는 데 주력했던 과거의 전통적인 테러리즘은 점점 대규모의 인명피해를 낳는 뉴테러리즘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알카에다의 9.11 테러는 이러한 뉴테러리즘의 대표적인 예로써, 한꺼번에 무려 약 3,500명이 희생되는 비극을 낳았다. 미국은 특히 이 사건 이후 국토안보법을 만들고 미국을 출입하는 외국인에 대해 전례 없이 강한 통

제를 하기 시작하였고, 알카에다와 알카에다를 지원하는 아프카니스탄의 구정권을 전쟁을 통해 몰아내었다. 이에 알카에다를 비롯한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조직들은 다른 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테러가 힘들게 되자 새로운 형태의 테러를 간접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하는 형태로 그 활동을 변화해 왔다. 그들은 쉽게 탐지되는 외국인보다는 이슬람 근본주의에 동조하는 서구국가의 내국인들을 포섭함으로써 그들의 테러를 지속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서구국가의 주로 이슬람계 시민이 자신과 같은 국적의 시민들을 테러목표로 삼는 자생테러로 발전하게 되었다.

영국의 경우 무슬림의 이민과 정착에 대해 비교적 관용적인 태도를 취해왔고, 그 결과로 160만 명 정도의 무슬림이 정착해 살고 있다. 그 중 80%가 아시아계 무슬림이며, 이 중 45%가 파키스탄계로 나타나고 있다(이상우, 2005). 영국에서는 2001년과 2004년에 각각 테러기도가 있었으며, 2005년에는 런던의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와 3곳의 지하철에서 출근시간대에 자살폭탄테러가 발생하여, 무려 50여명이 사망하고 70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이 테러는 영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파키스탄계 등의 평범한 영국인¹⁾이 지하드 테러에 가담하여 같은 영국인을 살해한 사례로서 영국사회와 이라크에 파병을 한 다른 여러 국가에 충격을 주었다. 이 2005년의 테러 이후에도 영국에서는 공항이나 비행기, 식당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의 테러시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테러들은 대부분 평범한 영국인이 이슬람으로의 개종 등을 통하여 테러에 가담하는 자생테러의 형태를 띠고 있다.

프랑스는 영국과는 달리 오래 전부터 식민지였던 알제리계 테러집단의 테러에 시달려 온 나라이므로 테러집단에 대한 통제가 비교적 강하였다. 2010년에도 집시들을 추방하고, 부르카의 착용을 금지하는 등 테러에 대해 강경하고도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9.11 이후 프랑스에서는 마켓이나 지하철, 공항 등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대한 많은 테러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미수에 그쳤다. 덴마크의 경우 한 신문에서 이슬람교의 마호메트를 비하하는 만화를 게재하여 아랍권의 공분

1) 이 테러의 리더였던 모하메드 칸은 파키스탄계 영국인이었으며, 서구화된 어린 시절을 보냈고 학교의 보조교사로 일했다. 또 다른 테러범인 셰자드 탄위어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벤츠를 몰고다니는 뛰어난 운동선수였으며, 대학에서 스포츠과학을 전공했고 좋은 옷을 입고 규칙적으로 일하는 남들이 좋아할만한 사람이었다. 또 다른 테러범인 19세의 저메인 린제이는 학업과 운동에 모두 성공적인 명석한 아이였다(Gartenstein-Ross and Grossman, 2009).

을 불러일으켰고, 이것은 다시 덴마크에 거주하는 무슬림의 자생테러시도로 발전하였다. 네덜란드에서는 2004년 회교권 남성들을 여성을 고문하는 사람으로 묘사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한 영화감독이 출근길에 참수를 당하는 테러를 당했다. 이러한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사례는 한 정부의 정책이 아닌 한 사기업이나 개인의 태도에 의해서도 자생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서는 2004년 통근열차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폭탄테러로 인해 무려 192명이 사망하고 2,000여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테러에 가담한 8명 중 6명은 외국계의 스페인 국적보유자로서, 자생테러의 위험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 테러에서 잘 알 수 있다. 스페인 외에도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스위스 등의 다른 유럽국가들에서도 자생테러는 유사한 형태로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 특히 벨기에는 14명의 벨기에 국적의 무슬림이 교도소에 구금된 알카에다의 조직원을 구출하는 계획이 발각된 바 있고, 네덜란드나 벨기에와 같이 인구가 적은 나라에서는 무슬림인구가 점점 큰 비율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유럽 이외의 서구국가들 또한 자생테러의 예외가 아니다. 호주의 경우 인도네시아의 나이트클럽에 폭탄테러를 가해 220명 이상을 사망케 한 레바논계 호주인이 검거된 바 있었는데, 이 사망자들 중 무려 92명이 호주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이 사건도 사실상 자생테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2006년과 2010년에 각각 자생테러조직이 모의단체에서 적발되었다. 미국의 경우 아랍계 이민자들이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기회를 누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자생테러의 대상국이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로 공항이나 미군기지, 랜드마크가 되는 고층빌딩 등에 대한 테러모의가 밝혀진 바 있으며, 실제로 2009년에는 뉴저지의 미군기지 포트호드에서는 팔레스타인계 이민 2세인 군의관이 동료 군인들에게 총을 난사하여 13명이 사망한 바 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2009년 말 사이에 발생한 자생테러는 총 46건에 125명의 미국인이 연루되었고, 이것은 해외로부터의 테러는 제외한 수치이다(Jenkins, 2010).

특히 2003년에는 한국에서 태어나 가족을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 22세에 시민권을 취득한 권용기씨가 2000년에 이슬람교로 개종을 한 후, 아랍계 친구들과 지하드에 참여하기 위해 파키스탄으로 가서 테러훈련을 받은 후 미국으로 다시 귀국

하여 테러집단을 구성하고 충기를 모으고, 폭탄제조법을 익히며 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검거된 바 있다. 그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11년 6개월 징역형을 받았다. 이 사례는 한국인도 자생테러집단에 포섭될 수 있으며, 국내의 시설이나 사람들을 자생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1】 미국 9.11 테러 이후 서구에서 발생한 주요 자생테러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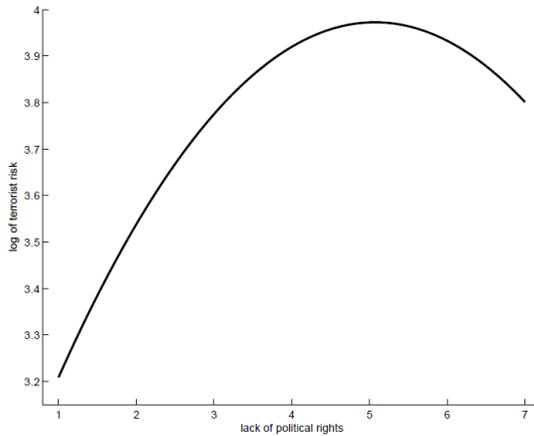
국명	주요 자생테러사건	범인
영국	· 2001년 12월, American Airline 비행기 폭파미수	개종한 영국인
	· 2004년 질산암모늄 비료폭발물 600kg을 이용하여 테러를 모의하다가 적발됨.	무슬림가정에서 자란 영국인, 파키스탄계 영국인들, 알제리계 영국인
	· 2005년 2건의 자살폭탄테러로 50명 사망, 700명 부상	파키스탄계, 자메이카계, 동아프리카계 영국인
	· 2006년 적어도 10대의 대서양횡단 비행기에 대한 액체폭탄 테러미수	영국태생의 영국인들 (그 중 적어도 3명은 개종함)
	· 2007년 글래스고우 국제공항의 차량폭탄 테러	4명의 영국인 의사들
	· 2008년 엑스터(Exeter)의 한 음식점에서의 폭발물 테러	22세의 개종한 영국인
프랑스	· 2000년, 2001년, 2005년, 2006년 마켓, 지하철, 공항 등에 대한 테러미수	
덴마크	· 2005년 마호메트를 비하하는 만화를 게재한 신문사와 만화가에 대해 테러미수, 2007년 테러미수	요르단계 이민 2세, 덴마크 출생
	· 2007년 코펜하겐 폭탄테러 미수	8명 중 6명이 외국 태생의 덴마크 국적자
네덜란드	· 2004년 회교권 남성들을 여성을 고문하는 사람으로 묘사한 다큐멘터리를 만든 영화감독 테오 반 고흐가 출근길에 침수당함	모르코계 이민 2세, 암스테르담 출생
스페인	· 2004년 마드리드 통근열차 폭탄테러로 192명 사망, 2,000여명이 부상	테러범 중 1/3이 스페인 시민권자
독일	· 2007년 1,500파운드의 과산화수소(런던 폭탄테러에 사용된 물질)를 운반하다가 체포됨.	2명의 개종독일인과 1명의 터키인
이탈리아	· 2004년 밀란시 지하철에 대한 폭탄테러 미수	이슬람 성직자를 포함한 테러집단
	· 2007년 테러범 포섭 및 훈련 담당자 검거	
벨기에	· 2007년 구금된 알카에다 요원을 구출하려다 검거	14명의 벨기에인
	· 2008년 테러집단에 가입한 사람들 검거	6명의 벨기에 시민권자

국명	주요 자생테러사건	범인
스위스	· 제네바공항에서 이스라엘 민항기에 대한 로켓추진수류탄(RPG) 공격미수	북아프리카계 이민자 7명
호주	· 2005년 멜버른과 시드니에서 2002년과 2005년의 인도네시아 발리 폭탄테러를 저질러 220명 이상이 중 92명이 호주인을 죽인 테러범 검거, 2009년 6명 구금	레바논계 호주인 2세
미국	· 2002년 버팔로에서 6명의 테러집단 검거	미국 태생의 예멘계 시민권자
	· 2003년 북버지니아에서 테러집단을 결성하고 총과 폭탄제조법 등을 수집하다가 검거	아랍계 미국인 11명 (한국계 권용기 포함)
	· 2005년 LA공항의 이스라엘 항공사 착구에 대한 테러미수	4명 중 3명이 미국 태생의 개종자
	· 2006년 시카고의 시어스 타워 공격미수	7명 중 5명이 미국인
	· 2007년 뉴저지의 미군부대 포트덱스 공격미수	요르단, 터키, 알바니아 출신 이민자
캐나다	· 2006년 온타리오에서 폭탄차량을 토론토 증권거래소로 돌진시켜 폭파시키기 위해 질산암모늄 3톤을 구입하려다 검거	자생 테러조직 (토론토 18) 소속의 18명의 캐나다인 기소
	· 2010년 G20 정상회의의 장소에 대한 폭탄테러 미수	3명 중 한 명은 캐나다 태생의 내과의사이며, 다른 한 명은 병원방사선기사

(출처): Wilner and Dubouloz, 2009; Precht, 2007; 기타 신문기사들

전통적으로 일반적인 테러는 경제적 조건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빈곤한 지역에서 급진적인 테러집단들은 능력 있고 학력수준이 높은 양질의 전사들을 테러에 끌어들일 수 있다. 특히 중동과 같은 제3세계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빈곤이나 경제적 불평등은 테러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다 (Benmelech et al., 2009; Bayo, 2008). 또한 한 사회의 소수집단이 경제적인 차별을 많이 받는 국가일수록 보다 많은 국제테러 및 국내테러가 발생한다(Piazza, 2010). 그러나 한편으로는 빈곤이나 교육의 부족이 테러와 별다른 관계가 없다는 증거도 많이 존재한다(예를 들어 Kueger and Maleckova, 2003; Abadie, 2004).

이처럼 한 국가의 특성에 따라서 테러를 설명하려는 또 하나의 시도는 정치적 자유와 관련하여 테러의 발생을 설명하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폭력적인 테러에는 정치적 메시지가 항상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치적 자유는 테러의 발생빈도와 관련이 있을 것임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프리덤하우스의 정치적 자유를 나타내는 두 척도 중에서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의 정도²⁾에 따라서 국제 및 국내테러의 발생빈도를 살펴 본 한 연구(Abadie, 2004)에 따르면, 국제 및 국내테러의 발생빈도는 정치적 자유의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정치적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거나 억압되는 나라에 비해서 중간 정도의 정치적 자유가 있는 과도기적인 국가에서 테러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스페인이나 이라크, 러시아와 같이 권위주의적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국가들에서 테러가 크게 증가하는 것은 이러한 정치적 자유와 테러위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7】 정치적 권리의 결여와 테러발생빈도

(출처): Abadie, 2004

그러나 자생테러는 이러한 일반적인 테러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자생

2) 2010년 프리덤하우스의 보고서(Freedom House, 2010)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정치적 권리에서는 가장 높은 1이며, 시민적 자유 항목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2이다. (1(최대)에서 7(최소))

테러에 대한 많은 연구들(Jenkins, 2010; Gartenstein-Ross and Grossman, 2009)에 따르면, 자생테러리스트들은 테러지향적인 성격이나 다른 특성을 가지지 않는다. 또한 급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자생테러로 이어지는, 쉽게 수렴되는 하나의 통로를 찾기도 힘들다. 급진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연결고리들은 강한 인과관계를 갖고 연결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상당한 우연성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은 급진화의 과정에서 중도 탈락하기도하며, 행동으로 실행하지 않는다. 실제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상적인 테러리스트가 실직상태이거나 빈곤상태에서 나타나는 데 비해서, 많은 자생테러리스트들은 사회적으로 버젓한 직업을 갖고 있거나 대학생이다.³⁾ 이러한 자생테러의 특성은 기존의 테러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과는 다른 새로운 설명을 요한다. 최근에 서구사회에서의 급진화 과정에 대해 몇 가지 연구 실적이 축적되어 왔고, 이것은 다음에 논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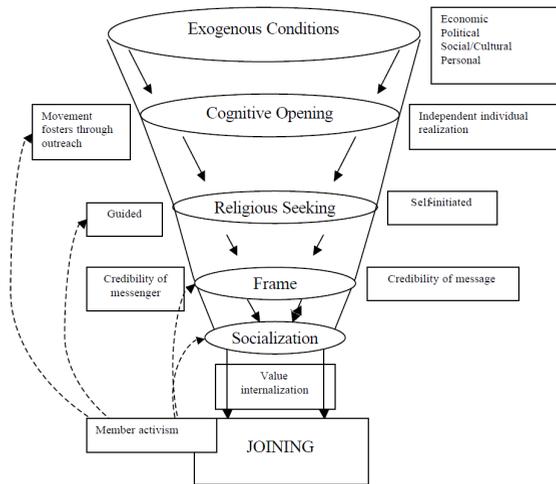
III. 서구사회에서의 급진화 과정과 급진화의 징후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구사회에서 외국인에 대한 통제가 매우 강해졌고, 과거와 같이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집단이 다른 국가를 상대로 조직원을 파견하여 쉽게 테러를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9.11 이후의 서구사회의 테러양상은 국제테러보다는 서구사회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나, 오래 전에 이민하여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포섭하여 개종을 시키거나, 지하드 이데올로기를 주입하여 같은 국적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테러를 하도록 만드는 양상을 띠었다. 이것은 이전의 테러와는 달리 한 국가 내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여겨져 자생테러로 불리고 있다. 이러한 자생테러는 이전의 테러와는 달리 한 국가(주로 서구국가) 내에서 태어나거나 성장한 시민권자들이 아랍세계를 속박하는 미국중심의 서구국가들에 대해 적개심을 느끼고 이러한 적개심을 급진적인 형태로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한 평범한 서구사회의 시민이 이러한 테러집단의 극단적인 해결책에 대해

3) 이러한 경향은 무슬림 인구가 사회적으로 덜 배제되어 있는 캐나다와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매력을 느끼고 실행하기까지에는 몇 가지의 급진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서구 사회에서의 급진화 과정에 대해 자생테러의 발생초기에 관심을 보인 사람은 빅토로비츠(Wiktorowicz, 2004)였는데, 그는 급진단체 조직원들 사이의 대면적인 상호작용 과정에서 종교적 급진화과정을 크게 4단계로 설명하였다. 뷰텔(Beutel, 2007)은 이 과정이 대면적인 상호작용을 넘어서 인터넷을 통한 상호작용과정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첫째 단계는 인지적 개방(cognitive opening)단계로서, 이 단계에서 우연히 아랍지역에서 죽은 무슬림의 사진이나 비디오를 보여주는 급진적 웹사이트를 보게 되고, 이것은 젊은 청년들에게 정신적인 충격으로 남게 된다. 둘째 단계는 종교적 추구(religious seeking)단계로서, 이러한 충격에 대한 해답을 추구하기 위해 다른 웹사이트를 찾아다니게 된다. 셋째 단계는 사고의 틀을 갖추는 단계(frame alignment)로서, 인터넷의 공개채팅룸에서 익명의 급진적 조직원들과 대화를 하고 정치적 종교적 견해를 토론하고 교환하는 단계이다. 넷째 단계는 사회화(socialization)의 단계로서, 공개채팅룸에서 일련의 대화를 한 후 제한된 입장이 가능한 채팅룸이나 메시지서비스 또는 급진적인 이데올로기를 공유하는 홈페이지에서 대화를 시작하게 되어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게 되면 결국 테러에 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림 8】 Wiktorowicz(2004)가 제시한 급진화 과정

(출처): Beutel, 2007에서 재인용

이러한 종교적 급진화의 과정이 다소 추상적이라면, 보다 최근의 논의들은 훨씬 더 구체적이다. 그 대표적인 논의는 뉴욕경찰청의 보고서(Silber and Bhatt, 2007)이다. 이 보고서는 사례연구를 통하여 크게 다음의 4단계로 서구사회의 시민들이 어떻게 급진화의 과정을 밟게 되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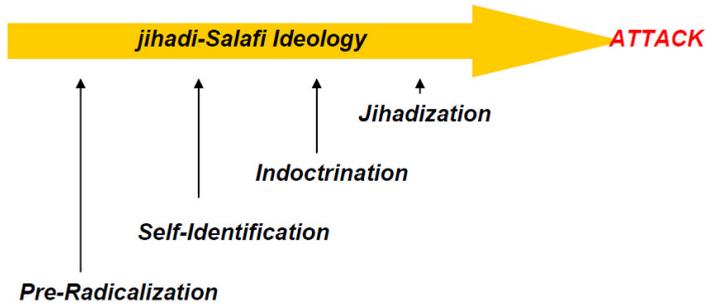
첫째 단계는 급진화 이전단계(pre-radicalization)로서, 이 단계는 자신의 이데올로기로서 급진적인 생각을 받아들이기 이전의 개인에게 놓인 삶의 상황을 말한다. 일반적인 다른 테러와는 달리 자생테러의 사례에서 급진화 이전의 단계는 대부분 매우 평범한 사람들로 구성된다. 실제로 테러에 가담한 사람들은 고등학생, 대학생, 의사, 군인, 교사, 휴대폰가게사장, 직업상담사, 엔지니어 등의 직업을 갖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 단계는 자기인식단계(self-identification)로서, 내적, 외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이슬람의 교리를 탐구하고 점점 자신의 옛 정체성으로부터 빠져나와 이슬람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고 이와 유사한 생각을 갖는 사람들과 친교하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종교적 추구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인지적인 개방의 자세가 필요하고, 자신의 기존의 세계관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관을 받아들일 자세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몇몇의 촉발요인이 작용하는데, 이러한 것으로는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실업, 상승이동의 기회박탈, 소외, 차별, 인종주의 등), 정치적 상황(무슬림과 관련된 국제적 갈등상황), 그리고 개인적 요인(친밀한 가족구성원의 사망 등)을 들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주입단계(indoctrinization)로서, 어떤 개인이 자신의 믿음을 강화하고 지하드의 이데올로기를 전적으로 채용하며, 아무런 의문이 없이 행동이 요구되는 상황이 존재한다고 결론내리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스스로 선택한 급진적인 모임은 그 개인이 급진적인 견해를 강화하는데 점점 중요한 집단이 된다.

네 번째 단계는 지하드화단계(jihadization)로서, 이전의 단계에서 구성된 급진적인 소집단의 구성원이 지하드에 참여할 의무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성스러운 전사 또는 무자헤딘으로 스스로 선택하는 단계이다. 이렇게 되면 테러를 계획하고 준비하며, 실행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러한 지하드화의 단계는 2-3년 정도로 점진적일 수도 있지만, 단지 한 두 달 정도의 매우 단기간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지하드의

이데올로기가 주입된 이후 테러를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2-3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1-2달만에 테러를 실행할 수도 있다.



【그림 9】 급진화를 통한 자생테러발생의 과정

(출처): Silber and Bhatt, 2007

유럽에서의 급진화과정을 연구한 프레히트(Precht, 2007)도 이 뉴욕경찰청(NYPD) 보고서와 유사한 단계를 제시하는데, 그가 제시한 4단계는 다음과 같다.

1. 급진화 이전단계(pre-radicalization)
2. 개종과 급진이슬람의 정체성(conversion and identification with radical Islam)
3. 주입과 증가된 집단유대(indoctrination and increased group bonding)
4. 실제 테러실행 또는 테러모의(actual acts of terrorism or planned plots)

프레히트의 4단계의 요지는 개인적, 사회적 좌절이나 그들이 속한 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급진화 과정을 겪으며, 이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유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며, 함께 일련의 사건들을 겪고 결국 테러를 실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서 급진화의 과정이 과거에 비해 점점 빨라지고 광범위해지며, 보다 익명적으로 진행되며, 점점 평범한(unremarkable) 사람들이 더 많이 테러에 가담하고 있다. 자생적 테러리스트들은 특정 수준까지 자발적으로 형성되고 성장하지만, 최근의 대부분의 테러리스트들은 파키스탄이나 아프카니스탄과 같은 테러의 기지가 되고 있는 나라로 여행을 통하여 급진

적 이데올로기를 심화시키거나 테러훈련을 받은 후 더 강화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집단들은 이러한 서구사회에서 발생하는 테러의 조정자이며 동기를 강화하고 부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Precht, 2007; Vermaat, 2007).

실제로 영국과 미국에서의 자생테러범 117명을 연구한 가튼스테인-로스과 그로스맨(Gartenstein-Ross and Grossman, 2009)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테러범들의 40% 이상이 지하드 전투에 참여하거나 훈련을 받기 위해 해외로 여행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튼스테인-로스과 그로스맨에 따르면, 급진화의 과정이 진행되면서 단계별로 다양한 급진화의 징후가 나타나는 급진화의 징후(manifestations of radicalization)를 다음의 6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이슬람에 대한 형식에 구애되는 해석(legalistic interpretation)을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이것은 신도들이 이슬람의 경전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해석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해석방식을 가진 사람은 코란과 수니파가 제공하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따르는데, 이것은 신앙의 실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사실상 모든 측면에 적용된다.

둘째, 단지 선택된 종교적 권위자들만을 믿는 것으로서, 급진화과정은 소수의 선택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완고한 일련의 종교적 권위자들의 해석만을 믿게 만든다. 종종 이런 사람들은 이슬람에 대한 진정한 해석만을 가르치고, 상대적으로 보다 온화한 성직자들은 진정하지 못한 신앙의 설명을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이슬람과 서구 사이의 지각된 괴리로서, 자생테러범들은 급진화될 때 그들은 종종 이슬람과 서구 사이의 내재된 괴리를 지각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슬람과 서구는 상극이며 결코 공존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몇몇 경우에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서구 사회와 물리적으로 고립시키는 반면에, 다른 경우에는 친구나 가족 또는 공모자에게 이슬람과 서구 사이의 지각된 괴리를 설명하려고 할 것이다.

넷째, 지각된 종교적 일탈에 대한 낮은 관용으로서, 자생테러범들은 이슬람에 대한 완고한 해석을 내면화하게 되면, 다른 대안적인 해석이나 실천들은 신학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무례로 보는 경향을 갖는다. 이러한 지각된 종교적 일탈에 대한 무관용은 보통 다른 무슬림에 대한 신랄한 비난을 통해서 말로 표현되지만, 간혹 폭력으로 표출되는 경우도 있다.

다섯째, 다른 사람에 대해 종교적인 믿음을 강요하려는 시도로서, 종교적 일탈을 관용하지 못하게 되면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려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강요는 먼저 가족들에게 향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다.

여섯째, 정치적 급진화로서, 자생테러범들에게 하나의 공통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대체로 서구의 힘있는 국가들이 이슬람에 반하여 공모하고 정복하려고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동시에 세계 도처의 무슬림들은 그들의 신앙을 잃어왔으며, 마호메트의 시대에 가졌던 세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테러행동은 적절하면서도 유일한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급진화의 징후는 자생테러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각 개인이 겪게 되는 경험과 태도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자생테러를 예방하고 테러용의자를 검거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IV. 한국의 자생테러 발생가능성: 한국과 서구사회의 자생테러 관련 요인 비교

여기에서는 서구사회에서 자생테러의 배경요인이나 촉발요인이 되고 있는 요인을 중심으로 그것의 한국사회에서의 중요성과 적용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본다. 프레히트(2007)는 서구사회의 경험을 토대로 자생테러를 발생시키는 세 가지 범주의 동기요인 - 배경요인, 촉발요인, 기회요인 - 을 지적한다. 서구사회에서의 소수집단으로서의 무슬림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느끼는 정체성의 위기를 특히 이민 2세나 3세의 경우 더욱 강하게 느끼며, 특히 유럽에서 무슬림의 실업율은 매우 높으며 이것은 빈곤으로 이어져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한다. 영국,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등의 유럽국가처럼, 무슬림거주지가 주류사회와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은 무슬림의 주요가치가 사회의 한 부분이 되지 못하는 평행사회(parallel society)를 만들어낸다. 이 경우 무슬림 청소년들은 주류사회의 구성원들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고, 주류사회에서 존재하는 이슬람공포증(Islamophobia)과 배제는 많은 무슬림들을 무슬림지역사회와 문화적 종교적 배경으로 지향하게 한다. 또한 무슬림사회에서의 테러와 이슬람근본주의

에 대한 토론의 부재는 근본주의자들의 주장을 이슬람청소년들에게 받아들이게 만든다. 따라서 알카에다와 같은 이슬람테러에 대한 암묵적인 지지는 이슬람 청소년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높다(Precht, 2007). 이러한 요인들은 모두 자생테러를 발생시키는 데 있어서 배경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배경요인들은 직접적으로 테러를 만들어내는 요인은 아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회에서 소수집단은 이러한 배제와 차별, 소외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테러를 하지 않으며, 최근에는 차별이 상대적으로 적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자생테러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보다 직접적으로 자생테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촉발요인이나 기회요인들일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이 속한 서구국가가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에 군대를 파견하거나, 관타나모나 아부그레이브 교도소에서의 가혹행위 등을 담은 사진, 비이슬람 국가들이 이슬람국가들을 공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테러가 필요하다는 지하드의 논리, 지하드를 통한 순교 후의 이상적인 파라다이스의 기대, 급진적인 성직자나 주변의 조언자의 존재는 자생테러를 촉발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환경은 자생테러의 기회요인이 되는데, 이슬람사원의 존재나, 인터넷이나 위성방송의 이용가능성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Precht, 2007).

【표 2】 자생테러를 발생시키는 동기요인

범주	요인
배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구사회에서의 무슬림으로서의 정체성 위기 ■ 개인적 고통 ■ 차별의 경험과 상대적 박탈요인(사회적 불만족, 빈곤 등) ■ 살아가는 환경과 동년배(분리와 평행사회) ■ 소외와 정의롭지 못하다는 지각 ■ 이슬람 테러에 대한 무슬림들 간의 비판적인 토론의 상대적 부재
촉발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구의 대외정책과 유발적인 사건들 ■ 지하드의 신화와 행동에 대한 욕구 ■ 카리스마있는 사람이나 정신적인 조언자의 존재
기회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슬람 사원 ■ 인터넷과 위성방송채널 ■ 학교, 대학, 청소년클럽 또는 일자리 ■ 교도소 ■ 놀이활동 ■ 카페, 바 또는 서점

(출처): Precht, 2007

이후의 논의는 이러한 세 가지 범주에 포함되는 요인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조건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1. 배경요인(background factors)

한 국가 내에서 무슬림 인구의 비율이나 규모가 자생테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까? 실제로 자생테러가 발생하는 서구국가들은 모두 이슬람 이민자들의 수가 어느 정도 이상 되는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전체 인구 중에서 무슬림의 비율이 0.1% 미만인 이탈리아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자생테러의 대상이 되었던 국가들은 모두 소규모의 이슬람인구가 존재한다. 이들 국가 중 서구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존재하는 프랑스는 식민지였던 알제리계를 중심으로 전체 인구의 6%에 해당하는 355만 명의 무슬림이 존재한다. 그 외 네덜란드는 5.7%, 스위스 4.3%, 독일 4%, 벨기에 3%, 영국 2.7%, 덴마크 2%, 스페인 1%의 무슬림이 존재하며, 유럽은 평균적으로 전체인구 중에 5.2%의 무슬림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캐나다는 2%, 호주는 1.7%, 미국은 0.8%로 비유럽 서구국가들의 무슬림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3】 세계 주요국의 무슬림 인구(단위: 명, %)

국명	무슬림 인구	전체 인구 중 무슬림 비율	세계 무슬림 인구 중 비율
한국	71,000	0.1	< 0.1
호주	365,000	1.7	< 0.1
벨기에	281,000	3.0	< 0.1
캐나다	657,000	2.0	< 0.1
스페인	650,000	1.0	< 0.1
스위스	323,000	4.3	< 0.1
영국	1,647,000	2.7	0.1
미국	2,454,000	0.8	0.2
덴마크	88,000	2.0	< 0.1
프랑스	3,554,000	6.0	0.2

국명	무슬림 인구	전체 인구 중 무슬림 비율	세계 무슬림 인구 중 비율
독일	4,026,000	4.0	0.3
네덜란드	946,000	5.7	0.1
이탈리아	36,000	< 0.1	< 0.1
인도네시아	202,867,000	88.2	12.9
아프가니스탄	28,072,000	99.7	1.8
이란	73,777,000	99.4	4.7
이라크	30,428,000	99.0	2
요르단	6,202,000	98.2	0.4
레바논	2,504,000	59.3	0.2
말레이시아	16,581,000	60.4	1.1
파키스탄	174,082,000	96.3	11.1
예멘	23,363,000	99.1	1.5
아시아-태평양	972,537,000	24.1	61.9
중동-북아프리카	315,322,000	91.2	20.1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40,632,000	30.1	15.3
유럽	38,112,000	5.2	2.4
아메리카	4,596,000	0.5	0.3
총계	1,571,198,000	22.9	100

(출처): Pew Research Center, 2009

이러한 국가 내 무슬림인구의 비율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서 자생테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한 국가 내의 무슬림 인구의 존재가 자생테러의 토양이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자생테러의 발생은 이 비율 자체와는 비교적 관계가 적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무슬림 인구가 71,000명⁴⁾ 정도로 전체 인구의 0.1%에 불과하지만, 절대적인 규모 면에서는 무슬림 인구가 덴마크와 비슷한 숫자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자생테러를 위한 기본적인 토대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내에

4) 한국이슬람중앙회의 추산에 따르면, 한국 내 무슬림 인구는 2009년 12월 기준으로 11만 5천여명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한국인 출신 이슬람인구는 35,000명 정도이며 해외로부터 이주한 외국인 이슬람인구가 8만여명으로 추정된다. 국내의 이슬람 사원은 서울의 중앙회를 중심으로 부산, 대구, 광주, 안양, 부천 등 전국에 8개 지회를 두고 있으며, 60여개의 임시성원을 두고 있다.

존재하는 무슬림은 크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유입된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민을 통해 중앙아시아나, 남아시아의 이슬람 국가들로부터 들어오는 사람들과, 다른 하나는 외국인 노동자로서 입국하는 사람들이다. 전자는 한국인과 가정을 이룸으로써 비교적 한국사회에 동화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한다면, 후자는 한국에서 일을 하는 동안 사귀 한국인과 혼인하여 가정을 꾸리는 경우도 있지만, 출신국의 배우자를 맞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한국에서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의 동반이 허용되지 않지만, 결국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정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 내의 소수집단을 이룰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이 중 회교권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한국 내의 무슬림 인구로 남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언어가 통하는 조선족이 과반수를 넘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베트남, 필리핀, 태국의 순으로 나타난다. 회교권 국가 출신으로는 인도네시아가 23,116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우즈베키스탄이 11,143명, 파키스탄이 5,357명, 키르기스스탄이 614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테러단체가 많이 활동하는 파키스탄 출신이 5천 명 이상 존재한다는 사실은 급진적인 성향을 가진 이슬람성직자들이 활동할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4】 한국 내 국적별 외국인노동자 분포(2009.9)

구 분	총 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필리핀	29,556	23,545	6,011
몽 골	12,418	8,557	3,861
한국계 중국인	308,265	299,698	8,567
중 국	18,983	11,930	7,053
스리랑카	13,631	12,656	975
베트남	49,789	42,095	7,694
타이	25,860	21,987	3,873
인도네시아	23,116	19,669	3,447
우즈베키스탄	11,143	9,401	1,742

구 분	총 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파키스탄	5,357	4,288	1,069
캄보디아	5,044	4,445	599
방글라데시	4,654	2,891	1,763
키르기스스탄	614	517	97
네 팔	4,923	3,858	1,065
미얀마	2,295	1,855	440
동티모르	-	-	-
일 본	1,385	1,385	-
미 국	13,613	13,548	65
캐나다	5,402	5,365	37
영 국	2,346	2,336	10
러시아	743	560	183
한국계 러시아인	1,957	1,945	12
호 주	777	773	4
뉴질랜드	713	712	1
기 타	6,698	5,619	1,079
총 계	549,282	499,635	49,647

(출처): 법무부, 2009

그러나 자생테러의 발생에 있어서, 이러한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인 측면이 훨씬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 내의 무슬림이 얼마나 차별이나 불평등, 빈곤 등에 시달리는지, 상대적 박탈감을 얼마나 느끼는지, 주류 한국인과 얼마나 분리되어 살아가는지, 한국에 정착하는 경우 무슬림 소수집단으로서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지 등이 자생테러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외국인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무슬림들은 대부분 가족단위로 정착한 사람들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입국한 사람들이므로 무슬림의 정착의 역사가 오래된 서구국가와는 사정이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외국인노동자정책은 교대제로서, 일정한 기간을 일하고 나면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에 정착하는 경우는 현재는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이

런 회전문정책을 오래 전에 취했던 프랑스와 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많은 외국인들이 정착하고 있으며, 국내의 기업에서도 말을 하기 시작하고 숙련도가 높아진 외국인 인력을 쉽게 포기하려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 사회의 소수집단으로 정착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서구사회에서의 자생테러는 이민 1세대보다는 대부분 이민 2세대들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은 인격이 덜 형성된 청소년기에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테러에 가담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한국의 경우 아직은 이민 1세대가 형성되기 시작한 단계이므로 아직은 자생테러가 일어나기 쉬운 배경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 외국인노동자들이 입국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부터이므로, 20년 남짓의 시기에 정체성의 혼란을 느낄만한 외국계 한국인이 다수 발생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촉발요인(trigger factors)

촉발요인은 배경요인과는 달리 직접적으로 서구사회에 대한 분노나 행동에 대한 욕구를 느끼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러한 것으로는 이슬람 국가에 군대를 파견하여 전쟁을 하는데 동조하거나, 아랍권에 대해 적대적인 외교정책을 펴는 것, 그리고 자신이 속한(서구)국가나 그들의 군대가 이슬람의 자존심을 해치는 가혹행위나, 무고한 살인, 교도소에서의 고문 등 분노를 유발하는 사건에 대한 소식이나 그러한 사건과 관련된 사진 등을 접하는 것 등 다양한 사례들을 들 수 있다. 아랍세계는 역사적으로 서구국가의 지배를 받아왔으며, 오래 동안 그들의 가혹한 통치에 시달려 왔다. 따라서 서구에 대한 아랍세계의 적대감은 자연스럽게 서구와 아랍권을 대립적이고 적대적인 관계로 보게 만들었다. 더구나 서구의 대표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고 9.11테러에 대한 보복으로 아프카니스탄까지 침공하고, 여기에 영국을 포함한 다수의 서구국가들이 참전하게 되면서, 아랍권에서 이슬람근본주의는 더욱 암묵적인 지지세력을 얻는데 성공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슬람 테러단체들의 서구국가들에 대한 ‘아랍형제’들의 지하드에 대한 호소는 과격한 행동에 대한 욕구들을 키워왔다. 또한 일부의 급진적인 이슬람 성직자들은 서구사회에서 무슬림

의 수적 증가를 이용하여 모스크를 만들고 급진적이고 전투적인 논리를 서구사회의 무슬림들에게 전파하여 지하드에 참여하기를 촉구했다.

아랍인들이 여기는 서구에는 일반적으로 유럽과 북미의 서구국가들이 포함되지만, 이미 알카에다는 중동에서의 전쟁을 돕고 군대를 파견하는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비서구국가들 역시 테러의 대상이 될 것임을 선언한 바 있다. 실제로 이라크에서의 김선일 살해사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샘물교회 선교단 인질사건 등은 한국이 이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파견했고, ‘아랍의 형제들’을 억압하는데 앞장을 서는 대외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대한 테러집단의 경고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사건에서 눈여겨 보아야 하는 것은 이들이 단순히 한국인을 납치하거나 살해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포교하기 위해 이슬람세계로 들어간 것이라는 점이다. 이 점에서 부시와 같은 기독교근본주의에 기초한 이슬람에 대한 신십자군전쟁의 한 맥락에서 한국의 일부 기독교교회의 선교활동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한국에 대한 테러가 몇 건 발생했지만, 자생테러는 아직 한국사회에서 발생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사고틀에서 이슬람세계를 억압하는 서구국가들의 대립되는 맥락에서 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는 (일부 동조행동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중요한 적으로 여겨지지 않아왔다.

둘째, 한국에서 파견한 군대들이 대부분 지역의 복원과 대민지원업무를 펼침으로써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분노를 일정 부분 피할 수 있었다.⁵⁾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아랍인을 분노하게 만드는 유발적 사건들 또한 한국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또한 중동에서 활동하는 무슬림과는 달리, 자생테러를 할 수 있는 한국 내의 무슬림은 한국이 처한 현실에 대한 이해가 훨씬 깊고, 따라서 한국의 군대파견 등에 대해 그 불가피성을 비교적 잘 이해한다.

셋째, 한국의 이슬람교 조직은 한국이슬람중앙회를 중심으로 매우 중앙집권적으로 잘 통제되며, 그 결과 급진적인 이데올로기를 전파할 수 있는 소규모의 이슬람사원이 들어서기가 어려웠다.

5) 예를 들어 이라크에 파견된 자이툰부대는 주택의 개보수, 주민을 위한 병원운영, 주민공동시설 설치, 문맹자 교실 개설, 태권도 교실 운영, 새마을운동 전파, 자립을 위한 기술훈련 등의 활동을 통해서 현지의 주민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은 바 있다(국방부, 2009).

넷째, 역사적으로 한국은 이슬람세계와 (축구를 제외하면) 충돌할 일이 별로 없었으며, 역사적으로 계속 충돌을 빚어온 서구국가들과는 달리 이슬람에 대해 큰 편견을 갖고 있지 않다(정확히 말하면 거의 모른다). 따라서 이슬람세계를 자극할만한 정치인의 언행이나 신문기사 보도 등이 비교적 적었다.

다섯째, 중동에서의 오랜 기간에 걸친 한국기업의 건설과 교류는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켰다. 기업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대립이나 반목은 금기시 하여야 했기에, 이슬람과의 관계를 비교적 우호적으로 가져갈 수 있었다. 실제로 서구 중심의 국제사회에서 배척되는 이란이나 리비아 등의 국가에서도 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이 많은 활동을 해오고 있다는 점은 테러를 피하는 보이지 않는 자산이다.

이처럼 그동안 한국의 외교정책 등에서 이슬람의 분노를 촉발할만한 문제가 적었다는 점과, 국내의 이슬람조직이 비교적 체계적, 중앙집권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어 급진적인 근본주의 이슬람이 자리 잡을 기회가 적었다는 점은 한국이 테러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내의 다른 종교에 비해 한국 기독교는 근본주의적인 색채를 상당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슬람교와 충돌할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다. 실제로 많은 국내의 기독교 교회들은 불교나 천주교를 대하는 것과는 달리 이슬람교에 대해 매우 적대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양 종교 간의 갈등은 향후 자생적인 테러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최근에 리비아의 한국외교관이 추방된 사례에서도 보듯이, 국내 언론이나 교과서의 아랍권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는 언제든지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내에 산재해 있는 미군기지 등에 대한 국제테러모의가 벌써 있었고, 만약 자생테러의 조건이 성숙된다면 가장 우선 순위의 대상은 미군기지나 미국의 시설이 될 가능성이 높다.

3. 기회요인(opportunity factors)

기회요인은 급진적인 근본주의 이슬람을 용인하거나 지지하는 사람들과 얼마나 쉽게 교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급진적인 이데올로기를 접할 수 있는 인터넷이나 서적, 사회조직 등에 얼마나 접근이 용이한지를 나타낸다. 특히 유럽에서 무슬림들은

주류사회에서 배제되어 자신들만의 하위문화를 만들어내고 보존하는 경향이 있고 이들은 무슬림 인구와 이슬람사원의 증가, 그리고 급진적인 성직자의 유입과 교류를 통해서 급진적인 이데올로기에 쉽게 빠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인터넷은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을 선택해서 취할 수 있고 유해정보의 배제나 검열이 어려우므로,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된 개인이 급진적 이데올로기에 심취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

한국의 경우 이슬람 사원 자체가 매우 적고, 그나마 매우 중앙집권적으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급진적인 이데올로기를 사원에서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인터넷이나 위성방송채널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고, 이제 대학 등에서도 동아리가 생겨나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급진적인 이데올로기가 전파될 기본적인 토대는 갖추어져 있지만, 한국국적을 가진 무슬림 이민 2세대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실제로 급진적인 이데올로기가 깊이 전파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는 않다.

그러나 한국 내의 무슬림인구가 점점 늘고 있고, 정착한 무슬림 2세대가 생겨나고 이들이 정체성의 위기를 느낄 수 있는 가까운 미래에는 한국에서도 자생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세계 속에서 한국이 처해 있는 외교현실에 비추어, 우리나라가 앞으로 오랜 기간 미국주도의 반테러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언젠가 자생테러가 일어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현재로서는 자생테러의 발생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VI. 결론 및 대책

이상에서 이 논문은 서구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자생테러의 개념, 실태, 그리고 그 관련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서구사회에서 급진화의 과정을 토대로 하여 한국사회에서 자생테러의 발생가능성에 대해 진단해 보았다. 서구사회에서 자생테러는 미국을 중심으로한 서구국가들에 대한 반감이 기본적으로 이슬람세계에 존재하는 상태에서, 폭력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군대의 파견 등을 통해 서구국가 내의 일부 급진화된 무슬림이 분노를 느끼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기존의 일반적인 테러와는 달리 자생테러의 테러범들은 서구사회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민 2세대가 대부분이

며, 테러나 범죄 측면에서 크게 두드러질 것이 없는 매우 평범한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새로이 이슬람교를 접하면서 급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들과의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 의해 점점 더 교리를 형식적으로 해석하고, 종속되어 착취당하는 자신들이나 선조들의 출신국가에 대한 연민과 국적을 갖고 있는 국가에 대한 분노로 인해 테러를 실행한다.

한국은 이들 서구국가들에 비해 우선 무슬림 인구가 아직은 0.1%로서 적고, 외국 인노동자가 정착하는 것을 막아왔기 때문에 한국을 정착해서 평생을 살아야 하겠다는 정체성을 갖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미 오래 전에 외국인노동자를 수입한 국가들의 선례를 참고하면, 한국에서도 정착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자생테러의 발생가능성은 낮지만, 향후 어느 정도 규모(서구국가와 같이 전체 인구의 2-6% 정도)의 무슬림지역사회가 형성될 때 자생테러의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한국이 처한 외교현실이 지속적으로 무슬림을 자극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므로 가까운 미래에도 테러의 씨앗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이미 자생테러를 경험한 외국의 대응 사례를 통해 한국에서 자생테러의 가능성을 미연에 줄여야 할 것이다. 향후 한국의 자생테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대응책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사회통합을 위해 소수집단을 포용하는 정책을 취하여야 한다. 소수집단이 한국사회의 한 부분이 되지 못하고, 이방인이 되어 외국의 급진적 단체의 주장과 논리에 동조한다면 한국사회의 안전은 보장되지 못한다. 특히 특정의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과 이에 기초한 차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일부 서구사회에서 발견되는 이슬람공포증은 이러한 편견의 결과이므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러한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을 단호히 금지하는 법체계의 정비와 법집행을 통해서 이러한 편견과 차별을 줄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증오범죄(hate crime)를 하나의 중요한 범죄로 다루고 규제하는 것은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높은 청년실업률과 많은 수의 외국인노동자들이 함께 공존한다. 또한 한국의 기독교 성직자들은 한국 내에서 이슬람교의 확산에 대해 매우 민감하고도 적대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 이러한 상황은 분명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 차별 또는 공격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둘째, 급진적인 이데올로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논리의 개발과 이것의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현대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유해한 지식이나 사이트에 대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이것을 막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인터넷상의 유해한 정보에 대해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급진적인 이슬람 근본주의나 다른 급진적인 사상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중고등학교의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학교에서 토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존의 많은 연구들(Buetel, 2007; Precht, 2007; Nelson and Bodurian, 2010; Gartenstein-Ross and Grossman, 2010; Jenkins, 2010)은 자생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무슬림지역사회와 정부와의 상호신뢰와 존중에 기초한 원활한 협조관계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무슬림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은 급진적이지 않으며, 만약 그 구성원 중 어느 하나가 급진화하여 테러에 가담할 징후를 보일 때, 이것을 가장 먼저 포착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무슬림지역사회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정부는 위기의 징후가 보일 때 이것을 빨리 포착할 수 있도록 관련자들(무슬림) 교사, 성직자, 경찰, 사회사업가, 정신과의사 등)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이처럼 자생테러의 시기에 테러에 대한 정보는 중앙의 정보기관보다는 지역사회에서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이러한 테러유형의 변화에 발맞추어 FBI나 CIA와 같은 중앙수사/정보기관이 지역의 경찰과 밀접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것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국제테러에서 자생테러로 테러의 유형이 바뀐다면, 테러에 대한 대응업무는 국가정보원과 같은 중앙기관은 지역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지역경찰과 밀접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정보수집기능의 상당 부분을 지역경찰에 넘기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국내에 거의 소개되어 있지 않은 서구사회의 자생테러를 국내에 소개하는 탐색적 연구로서 그 의미를 갖지만, 아직 이 분야의 연구가 생소한 관계로,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토대로 한 보다 본격적인 연구에는 이르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연구에서 제시한 상당수의 연구자의 직관에 기초한 진단과 예상은 그 자체로서 모두 향후 하나의 연구가설이 될 수 있는 것들이다. 향후의 이러한 분야에 더욱 많은 연구가 생산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구춘권. 2004. “‘새로운 테러리즘’, 그 확산의 배경과 대응방안.” 『정치비평』 2004년 하반기
- 국방부. 2009. 『2008 국방백서』 .
- 박동균. 2009. “한국의 테러리즘 발생 가능성과 국가대비전략.” 『한국테러학회보』 . 2009년 봄.
- 이상우. 2005. “런던테러의 원인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국제지역정보』
- 조호대. 2004. “우리나라에 예상되는 테러리즘의 유형과 대응방안.” 『사회과학연구』 . 제10권 2호
- Abadie, Alberto. 2004. "Poverty, Political Freedom, and the Roots of Terrorism." *American Economic Review*(95):4
- Bayo, Ogunrotifa Ayodeji. 2008. "Systemic Frustration Paradigm: A New Approach to Explaining Terrorism." *Alternatives*(7):1
- Benmelech, Efraim, Claude Berrebi, and Esteban F. Klor. 2009. "Economic Conditions and the Quality of Suicide Terrorism." Available at SSRN: <http://ssrn.com/abstract=1367828>
- Beutel, Alejandro. 2007. *Radicalization and Homegrown Terrorism in Western Muslim Communities: Lessons Learned for America*. Minaret of Freedom Institute.
- Freedom House. 2010. *Freedom in World 2010*.
- Gartenstein-Ross, Daveed and Laura Grossman. 2009. *Homegrown Terrorists in the U.S. and U.K.: An Empirical Examination of the Radicalization Process*. Fdd's Center for Terrorism Research.
- Jenkins, Bruan Michael. 2010. "Would-Be Warriors: Incidents of Jihadist Terrorist Radicalization in the United States Since September 11, 2001." Rand Foundation. Occasional Paper.

- Krueger, Alan B. and Jitka Malečková. 2003. "Education, Poverty and Terrorism: Is There a Causal Connec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17):4
- Nelson, Rick and Ben Bodurian. 2010. *A Growing Terrorist Threat?: Assessing "Homegrown" Extremism in the United States*.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 Piazza, James. 2010. "Revisiting Poverty and Terrorism: Economic Development, Inequality and Minority Economic Discrimination." School of Economic, Political and Policy Sciences. Paper for Terrorism and Policy Conference.
- Precht, Tomas. 2007. *Homegrown Terrorism and Islamist Radicalization: From Conversion to terrorism*. Danish Ministry of Justice.
- Quintan Wiktorowicz, "Joining the Cause: Al-Muhajiroun and Radical Islam." Paper presented at "The Roots of Islamic Radicalism" Conference, Yale University, (May 8-9, 2004)
- Sageman, Marc. 2008. *Leaderless Jihad: Terror Networks in the Twenty-First Century*.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Silber, Mitchell D. and Arvin Bhatt. 2007. *Radicalization in the West: The Homegrown Threat*. NYPD Intelligence Division.
- Vermaat, Emerson. 2007. "Homegrown Terrorism in Germany: The Case of Christian Ganczarski." Available at URL "<http://www.militantislammonitor.org/article/id/3204>"
- Wilner, Alex and Claire-Jehanne Dubouloz. 2009. "Homegrown Terrorism and Transformative Learning: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to Understanding Radicalization." *Global Change, Peace & Security*(22):1

The possibilities of Islam-home-grown terrorism in S. Korea

Park, Chulhyun*

This study analyzes the possibility of home-grown terrorism in Korea. After 9.11 terrorism, in western societies, many home-grown terrorists have attacked their own government and citizens with home-made bombs. Already, in England and Spain, the thousands of people were killed by home-grown terrorism on public transportation, such as subway train or bus.

Because western home-grown terrorisms are very different to existing international terrorisms, defining and reacting home-grown terrorisms are very difficult. But some existing researches show that the processes of radicalization in western societies have some typical steps, such as confusion of identity, conversion to Islam, or legalistic interpretation about Islam and etc.. This study analyzes the possibility of home-grown terrorism in Korea, through three factors such as background factors, triggering factors, and opportunity factors. Now, the possibility of home-grown terrorism in Korea is not high, but the possibility will be gradually increased within a short period, when the more Muslim foreign laborers settle down in Korea. Additionally, some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 Key words : home-grown terrorism, terrorism, Islam terrorism, western radicalization

논문투고일 : 2010. 10. 3. / 심사완료일 : 2010. 12. 16. / 게재확정일 : 2010. 12. 20.

* Associate Professor
Dong-Eui University
Dept. of Police Administration